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Life and Ministry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전윤조 (Youn-Joe. Jeon)**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lives and ministries of foreign ministers who are currently working as domestic cross-cultural missionaries in Korean Churches. The church's missionary vision, is to prepare for the era of 5 million migrants which led to bringing this need to the attention of foreign ministers and for training more foreign ministers. Until now, huge interest and lots of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strategic part of migrant ministr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erest of foreign ministers who are currently carrying out migrant missionary work and are the main actors of the said ministry. In doing so, a qualitative study is used to examine the lif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accomplish this ministry.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ncludes: "What do foreign ministers think of life in the Korean churches?" Secondly, "What do foreign ministers think of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es?"

The researcher used an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to get a perspective on the lives of foreign ministers. In particular, 20 foreign ministers who have experience in ministering and living i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the Korean church, were selected as the study participants. The main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used participatory observation, field data collec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about 90 to 120 minutes each in three sessions and the research analysis procedure was based on the 12 steps of the cultural and technical journal research. The total company data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2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재구성한 것임.

** HOPE선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 younjoe@daum.net

is 1,064 pages, and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cess uses Nvivo 12 to secure reliability of the entire research process. 118 codes, 32 sub-components and 7 components were derived based on the most important statements of the participants. The seven components are: 'Korea, a new beginning', 'experience of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 'positive aspects of ministry experienc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hurch', 'on migrant missions and overseas missions of the Korean church', 'Reminiscing Life' and 'To the Korean Church'. The seven components are focused on life from the time they came to Korea up to the present. This study shows the lives and ministries of foreign ministers in the Korean church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results revealed in their lives.

The policy proposals were presented based on critical contextualization according to the most important statements requested by foreign minister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church, migrant Mission, foreign minister, Christian education,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I. 서론

자끄 아탈리(Jacques Attali)는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세계는 갈수록 상업적 노마디즘(Nomadism)의 가속화로 향후 50년 내에 10억 이상의 인류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Attali, 2005: 427). 이는 현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이유로 세계 인구의 1/6이 이동하며 살고 있으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라는 것을 뜻한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의 명맥을 이어 온 한국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계선자 외, 2012: 116). 2022년 2월 말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현재 단기 체류 외국인인 397,141명이며,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여 등록된 전체 체류 외국인인 1,962,594명이다. 2022년 2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한국의 총인구는 51,625,561명으로, 체류 외국인인 총 인구의 약 3.8%이며, 이는 곧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현상을 현실로 인식하여 체류 외국인을 선교적 대상으로 보고 국내 타 문화권 선교로 눈을 돌려 다문화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선교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의 선교의 한 축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주민 선교는 특수한 영역으로서 이주민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 즉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처리하는 상황적 리더십을 가진 이주민 전문 사역자 육성의 필요성(구성모, 2015; 윤대진, 2016)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선교에서 외국인 사역자의 실제적 역할이 증가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본 연구자는 이주의 시대에 국가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이 사역 속에서 경험하는 이중문화(bicultural)적 삶의 의미와 적응 과정으로서 전체적인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이주민 사역의 전면에 서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신앙관을 발견하여 우리의 신앙을 분석하고 점검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과제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 농촌 청년들이 조선족, 중국, 동남아시아, 구소련 연방 등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을 통한 이민자가 국내로 유입되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모든 이주민은 외국인 노동자로 불렸고, 정부는 불법체류 관련 이슈에 몰두했다. 반면

교회의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는 선교’를 강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주민을 통해 ‘오는 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까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주민들은 블루, 화이트 근로자를 포함하여, 유학생, 국제 결혼자 그리고 난민 등의 신분으로 다변화했고, 이들에게 모두 다문화라는 사회적 수식어가 붙여졌다. 개신교계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몰려드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춘 “묻지 마”식 이주민 사역을 행하였다(문창선, 2016).

석창원(2016)은 정권에 따라 외국인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정책이 수립되면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 현장의 형태도 바뀌게 되었고, 현재는 복음 전도와 인권보호 또는 복지활동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 이주민 선교의 형태는 1)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센터 2) 순수 교회 부속기관 사역 3) 순수 복음을 주장하는 기관이나 다문화교회 4) 혼합 형태의 사역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김영동(2000)은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는 이주민 사역으로서 무리가 없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극단적인 분리 현상의 갈등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

GMS다민족사역연합체는 합동 측 교단 내 이주민 사역 교회와 개인 및 단체 등 70여 처의 현황을 『2020년 국내이주민사역현황』으로 보고 하였다. 한 교단에 국한되어 있는 보고일 수 있으나 대형 교단의 보고인 만큼 이주민 사역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지역 별로 66개의 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며, 보안상 혹은 다양한 사유로 현황에 넣지 못한 28개의 미 취합 교회를 포함하여 총 94처의 이주민 사역 교회와 개인 및 단체가 있다. 한국 교회 소속으로 운영되는 이주민 사역 교회는 약 44처이고, 개인 및 단체와 독립교회로 모이는 곳이 약 22처로 조사되었다. 사역자들의 처한 문제와 애로사항이 다르지만, 특히 한국 교회 내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나 한국인 이주민 사역자들이 갖는 문제는 다양한 반면, 재정적인 면에서는 독립교회나 이주민 센터, 혹은 기관에 비해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역의 여러 면에서 한국 교회와 또 다른 공동체들과의 마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

이주민 사역 초기에는 현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국내로 돌아와서 이주민 공동체의 리더십을 담당하였으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형 교회들은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교회의 사역자로 임용하여, 자신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온누리 M센터 노규석 목사는 크리스천투데이(2018.9.26.)에서 이주민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좀 더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리더십과 신앙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즉, 이주민을 더 이상 선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선교의 파트너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서 책무를 지는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이주

민 사역에서 외국인 사역자는 선교사 역할, 조정가 역할, 행정가 역할, 교육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기독교의 교단별 외국인 사역자의 임용 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정노화(2009)는 외국인들의 예배가 500여 곳을 넘어서고, 외국인 사역자들이 리드하고 있는 곳도 150여 곳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주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자의 인원과 사역 보고가 집계되어 있는 『GMS 다민족사역연합체』(2020)에 따르면 이주민 사역은 대부분 한국인 사역자가 책임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인 사역자 외에 부책임자로 외국인을 동역자를 두고 있다. 총 66여 기관(교회 포함, 미 취합 교회 28개 제외)에 사역 중인 외국인 사역자는 전체 사역자의 약 1/3에 달하고 있다. 전윤조(2021)는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몇몇 국가별 외국인 사역자들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연락망을 통하여 사역자 통계를 대략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 포함) 250명, 러시아 약 100명, 몽골 약 50명, 베트남 35명, 인도네시아 약 25명, 캄보디아 10명, 방글라데시는 약 3명 등 총 8개 국가의, 약 473명의 사역자가 사역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만약 타 교단과 집계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사역자를 고려한다면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민’을 국내 체류의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지칭하여 사용하고,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관련되어 통용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이주민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이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를 가리키며, ‘외국인 사역자’라는 명칭은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 교회 내에 사역하고 있는 이주민을 부를 때 사용된다. 물론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위치에서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를 따라서 사용되며, 본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용어 사용을 기초로 하여 ‘다문화 사역자’가 아닌 ‘외국인 사역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III. 연구 방법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Ethnographic Study)은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 방법(Qualitative Approach)으로 문화기술지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산물은 세계 여러 낯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및 배경의 총체적 측면을 문서로 보고하거나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Jeffrey, 2010: 2). 특히 문화기술지는 문화를 기술하는 것으로, 문화와 문화 상황의 기술은 연구자가 특정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는 강한 욕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스프레들리(Spradley, 1980)에 의하면 문화기술지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 이상이며,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크레스웰(Creswell, 2018)은 문화기

술지의 목적을 문화공유집단(culture-sharing group)의 기술로 보았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은 문화공유집단을 연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그들 각자가 비록 다른 문화권 출신이나 그들이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공통된 문화적 배경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한국 교회 내 사역자의 삶과 문화에 대한 현장의 살아있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연구 방법의 한 방법론인 문화기술지의 연구 절차에 따라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문화적 묘사를 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공유된 패턴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문화기술지 연구의 분석 단위는 보통 20명에서 시작하며, 근거이론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도의 수준이다(Creswell, 2018: 117).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한국 교회 내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 2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특수한 문화적 환경인 한국 교회라는 사회로 유입되어 장기간 삶을 이어나온 특정 집단인 외국인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치와 행동 그리고 신념, 언어의 공유, 상호작용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로 선별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이주민 거주지역 자료와 실제 이주민 선교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총 6개 국가의, 한국 교회 내에서 5년 이상의 사역을 경험한 자료, 한국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선교지에서 한국인 사역자와 사역 경험이 풍부한 사역자라면, 국내에서 사역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지역은 수도권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의 조건에 맞는 외국인 사역자를 10명으로 선별하였고,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경북과 경남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10명의 외국인 사역자들을 선별하였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수도권의 대형교회에 집중되어 분포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는 한 교회에 2명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Table 1>은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자료이다.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	gender	region	residence period in Korea	education	title	period of service
A	여	부산	9년	박사수료	전도사	5년
B	남	경남	14년	박사수료	목사	11년
C	남	부산	6년	M.Div 졸업	목사	6년
D	남	부산	16년	M.Div 졸업	목사	16년
E	남	경남	12년	박사수료	전도사	7년
F	남	대구	10년	박사과정	전도사	10년

G	남	경북	5년	M.Div 과정	전도사	5년
H	남	부산	10년	M.Div 졸업	목사	10년
I	남	광주	17년	M.A 졸업	목사	11년
J	남	서울 경기	11년	박사과정	목사	11년
K	여	서울 경기	4년	Th.M 과정	전도사	3년
L	남	서울 경기	13년	M.Div 졸업	전도사	7년
M	남	서울 경기	8년	M.Div 과정	전도사	7년
N	남	서울 경기	10년	Th.M 과정	강도사	9년
O	남	서울 경기	10년	박사수료	목사	10년
P	남	서울 경기	19년	박사과정	목사	17년
Q	남	서울 경기	16년	박사수료	목사	16년
R	여	서울 경기	15년	M.Div 졸업	전도사	14년
S	여	서울 경기	24년	M.Div 졸업	목사	9년
T	여	서울 경기	8년	Th.M 졸업	전도사	8년

2. 자료 수집과 방법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혹은 자료 생산(data production)은 자료를 얻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 이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다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삼각 기법(triangulation)이라고 한다. 이 기법은 연구자가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듣고,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보며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논리적인 방식이 된다(Glesne, 2017: 76). 사람들의 말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료의 삼각 기법 유형(예를 들어 면담 후에 행동을 관찰하기)은 유용하다.

연구 방법으로 참여관찰과 현장 자료 수집 그리고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조사 과정 전에 연구 참여자와 라포르(rapport)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층 면담에서 진솔하고 풍부한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하는 자세와 민감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기로 녹음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후라 하더라도 인터뷰 당일, 정식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각 나라의 모국어에 능통한 공정한 입회자(impartial witness)를 영상통화 라인을 통해 배석하게 하였다. 면담 시간은 1회당 90~120분이며, 회당 간격을 한주 이상으로 하여 한 참여자당 총 3회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전체 자료는 질적자료 분석 과정 프로그램인 NVivo 12를 활용하였다. NVivo를 활용할 경우 유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면담을 완벽하게 녹취 및 전사를 하여야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가 녹취한 전 자료를 근거로 각 영역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방대한 자료를 코딩함으로써 코딩 항목 간의 빈도를 비교 분석하여 어떤 항목이 연구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지 알 수 있다. 넷째, 연구자의 참여 정도를 NVivo 내의 주제 영역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섯째, 질적연구 방법론을 취한 연구들의 경우 연구 맥락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명확한 연구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에 명쾌히 답을 할 수 있어 연구 수행 전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현철, 2015: 359).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화기술지는 최선을 다해 세계에 관한 진리를 어렵פות하나마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만큼, 과학적 연구의 인식론적 가치는 문화기술지 연구의 가치이기도 하다(Stewart, 1998: 18). 물론 질적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연구자의 주관적 관찰과 해석 중심의 연구 방법임으로 기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여주어 질적연구에 맞는 타당성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적 세계를 탐구한 연구의 평가이므로 기존의 표준을 수정하고 변경하여 사용한 Stewart(1998)의 기준인 진실성(veracity), 객관성(objectivity), 통찰력(perspicacity)이라는 용어로 논문의 타당도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보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Stewart, 1998: 18-64).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사항은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결과의 보다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하여 먼저, 연구자는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¹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연구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철저히 비밀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필요하다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연구 내용들(인터뷰 중 삭제될 원하는 내용)은 수정, 삭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 분석 절차는 스프레들리(1979)의 문화기술지 연구의 12단계를 기초로 하였다. 전체 전사 자료는 총 1,064장이며,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118개의 코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32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7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전체적인 주제에 따른 분석적 틀로 정리하여 코딩 및 분석 과정을 거쳤다. 범주화시킨 코딩 및 분석 결과 자료는 아래 <Table 2>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도출된 7개의 요소는 ‘한국, 새로운 시작’, ‘한국 교회 내 사

역 경험’, ‘사역 경험의 긍정적인 면’, ‘한국 교회의 특징’,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 ‘삶을 회고하며’ 그리고 ‘수신: 한국 교회에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Table 2>에서 코딩 수와 백분율로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Nvivo Key Area Coding Count and Frequency Results

category	main area	number of coding	frequency (%)
1. 한국, 새로운 시작	한국에 오게 된 동기	47	1.7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54	1.9
	학업에 대하여	93	3.3
	한국 교회 사역 시작	43	1.5
2. 한국 교회 내 사역 경험	전천후 사역	95	3.4
	스텝과의 관계	114	4.1
	사역의 자율성과 지원 부족	87	3.1
	스트레스	90	3.2
	외로움과 상처	117	4.2
	재정적 상황	114	4.1
	한국 사역자와의 관계	94	3.3
	딜레마	102	3.6
	문화충격	138	4.9
	차별감	55	2.0
3. 사역 경험의 긍정적인 면	가족 이야기	63	2.2
	사역의 의미와 기쁨	181	6.4
	지지와 위로	79	2.8
	한국 교회의 유익한 점	66	2.3
4. 한국 교회의 특징	서열 문화	76	2.7
	행정조직 문화	122	4.3
	실적과 형식 중시	83	3.0
	여성 사역자	46	1.6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	18	0.6
5.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	227	8.1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60	2.1
	코로나19 이후 사역	68	2.4
6. 삶을 회고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206	7.3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147	5.2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승인번호: KU IRB 2020-0041

7. 수산: 한국 교회에게	감사	24	0.9
	이해, 기다림 그리고 동역자로 존중해 주길	30	1.1
	외국인 사역자 배양의 사명 감당	48	1.7
	다민족 사회를 향한 선교적 준비	25	1.0
합계		2812	100

1. 한국, 새로운 시작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통로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속하여 학업과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신학생,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자 등의 다양한 입국 경로를 배경으로 갖고 있다.

“바로 오자마자 이거 브로커에 그때 돈을 엄청 많이 주니까 오자마자 일하는 거죠. 일하니까 음... 돈 값아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IMF가 터지니까 일자리가 없어졌고, 그래 가지고 힘들어진 거죠. 근데 일하고 또 저녁때 또 계속 알바하면서 어, 드라마 통해서 계속 한국어 배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한국어 배워야 되는데 성경책 주시고, OO어. 나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OO에 있을 때.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음.. 성경책. 그때 그 이거 인터넷도 모르지 또 어려,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도 없었어요. ‘OO어-한국어’ 사전도 없었고. 그랬을 때, 이렇게 ‘OO어-북한어’ 사전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단어만 조금 배우고 그런 다음에 어... 드라마 보고, 그런 다음에 성경책, 몇 장 몇 절 보고 이렇게 언어 배우는 거예요.” (참여자 S)

그들은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 생활 초기부터 학업을 하면서 한국 교회 봉사 혹은 사역자로 임용되었다. 특히 이주민들의 삶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그 영적인 부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까지 이어져 사역자가 된 경우도 있다.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아!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왔는지도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는데. 근데 일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근로자예요. 근로자들은 한국에 와서 평일 날 힘껏 일하고 돈 벌고, 주말에 술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행사 같은 거 열어서 술 먹고, 심지어 범죄도 저질렀는데. 아~ 그때 답을 점점...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 북쪽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기독교, 복음을 접할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구원받기 위해 보내왔다 생각했고. 어... 그래서 나는 사역자에서 가정 태어나게 되고, 자라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점점 부름 받고 신학도 했어요.”
(참여자 L)

이주민들은 한국에 입국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주민 사역이 정해진 입국 초기부터 한국 교회 사역자로 임용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교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과 지침이 제공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화충격을 겪었다고 한다.

“저는 지하철 타는 것도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티켓 사는 것도 몰랐어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말도 못 하고, 손짓으로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티켓을 사서 넣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나오려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래로 기어 나와서 달렸죠. 하하! 문화충격이죠. (참여자 H)

“사역자 됐을 때는 좀 많이 적응 안 된 게 많아요. 음... 하하! 제가 교회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하하하! (약간 눈물을 보이며 미소로) 서럽기도 하고 되게 너무 웃기기도 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낯설고, 어린 아이 같이 했었는데, 지금 다 적응했다고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적응하게 된 거라 생각해요.” (참여자 K)

2. 한국 교회 내 사역 경험

먼저, 한국 교회 내 사역 경험으로 무엇이든 다 해 내야 하는 전천후 사역은 목양의 고충을 보여 준다. 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을 위해 무엇이든 다 도와주어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보다 당연한 일로 치부될 때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외국인 사역자는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뭘든지 다 하는’ 사람이 된다.

“잠도 못자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외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도 모르니까 대신에 안 가본 데 없어요. 법원도 많이 갔고, 뭐 출입국 사무소, 뭐 병원, 뭐 어떤 공장. 뭐 안가본데도 없을 정도로 성도들한테 이거 도와주고 다녔거든요. 근데 몇 년 정도 그렇게 하다 돌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해 줬는데...” (참여자 T)

그들은 한국 교회의 사역 진행 흐름에 맞추어 이주민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언급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 목회자의 사역적 역할과 이주민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사역을 경험한다.

“그 주일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너무... 사실은 참석하라고 안 해도 제가 알아서 하면 원래 너~무 은혜로운 예배예요. 한국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참석) 하라고 안 해도 또 제가 참석해요. 하지만 이거 하라고 하면, 아~ 이것도 부담이 돼요. 만약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뭐 보고 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 너무 아! 다이나믹 한 교회라서 평일도 사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사람들은 평일도 못하고, 그 주말에,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지만 1부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예배도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도... 그 목상도 잠깐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거 다 못해요. 이거 또 한계가 있고, 그 조절이 쉽지 않아요.” (참여자 I)

참여자들은 스텝들이 사역 계획서나 설교 내용을 감시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서 사역자의 권위를 넘어선다고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사역자들은 불분명한 사역적 역할과 제한에서 오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통 그 부서 담당 목회자 중심으로 어떻게 목양하는지, 뭐 필요 하는지, 내가 협조하는 거, 힘써야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설교 왜 이래... 설교는 그분들이 터치하는 영역 아니잖아요, 그거. 집사 자체, 그 위치에서의 기능, 그 기능 아니잖아요. 무엇을 설교하는지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어느 정도 내가 OO인이고, OO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 어떤 내용 쉽게 설명하는지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설교가 길어, 내용이 뭐 (이렇고)... 이야기 하면 무례하잖아요.” (참여자 J)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일과 성취 그리고 성장 중심의 목회 사역에 대해 언급했다. 주일 예배 성도 숫자는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와 평가로 사역자의 책임과 의무의 잣대라고 한다. 물론 스텝들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사역자들은 이 과정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성과에 치중하면서도 외국인 사역에 준비가 부족한 스텝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처음에 OO 교회에서는 그냥 숫자를 검사했어요. 숫자, 몇 명 왔는지. 그때는 외국인 담당 집사님, 외국인 예배부 담당 봉사 팀 집사님인데, 그분도 진짜 숫자를 검사했어요. 많이 오면 괜찮은데, 적을 때는 아~ 진짜 힘들어요. 매주 그분 뭐... 예배실에서, 제가 안쪽에서 밖에 보면서 설교 인도하는데, 뒤에서 항상 짹짹(기계 같은 것을 찍으면서) 사람 몇 명 왔는지. 와서 하나, 둘, 셋, 짹짹짹 짹 사람 많이 왔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 많이 없을 때는 아~ 진짜 불안해요. 그리고 뭐 설교 중인데, ‘짹짹 짹’(기계 찍는 소리) 하니까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그때 진짜 그분 좀 이상했어요.” (참여자 D)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의 사역 규정을 따라 사역하는데, 일방적인 규정은 사역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한국 교회 사역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외국인 사역자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 각 나라의 민족성을 살리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역할의 한계와 사역의 자율성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세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외국인 목사이니까. 그러면은 네. 좀 실망했다기보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자녀라면, 제가 뭐 임신하고, 태어나고, 양육하고, (웃음) 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계획대로 그 명단도 (교회에)주고, 그 친구들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께) 세례 받았어요.” (참여자 I)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경험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낳는다. 한국어 호칭의 형태적 특성과 동시에 교회 내 사용되는 직분의 호칭을 고려하여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 수직적인 대인관계와 교회 내 서열에 따른 환경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한국인과 관계 맺는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의견을 전달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소통에 한계를 직면한다.

“언어 제한도 있고, 내가 예의 있게 그냥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한국 문화 속에서 어울리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씀 드리고 우회적인, 그.. 한국 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직접 “니가 이렇게 해!” 하지 않잖아요? 예의로...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그 조금 마음 아픈 상황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언어 제한도 있고, 그래서 오해도 생겼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국어 더 못했어요. 그래서 소통하고 싶은데 위로하고 싶은데, 언어하고 마음이 달라서... 그냥 스스로도 힘들고 답답하고(웃음) 그런 경우. 그.. 만약에 무슨 오해 생기면 풀려고 했는데 말을 정리하고 또 전달해야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고, 상대방 더 오해할 수 있어요.” (참여자 J)

참여자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 R은 냉정한 교회의 처우나 버림받는 경험으로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자 F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자살충동까지 경험했다.

“나중에 애들한테 풀었죠. 엄청 많이 때렸어요. 화가 나고 애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OO신대원 다닐 때, 되게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상담도 받았고. 학교 상담 무료잖아요. 내가 입으로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좋은 모습 보이지만 뒤에는 가면(을 쓰고), 애들... 진짜 살인하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걸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참여자 R)
“목사님이 나한테 등록금 못해주니까, 나몰라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 좀 알아보니 다른 교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를 연결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안 된다고 후원해주겠다는 교회 목사님이라 싸워가지고... 아! 저는 갈길 없어가지고 그 때 자살 할 뻔 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한국 사람도 원망했어요.” (참여자 F)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학업과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구조에 갈등을 느낀다. 참여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회의 사례비 때문에 항상 사역 외에 일거리를 찾는 것은 기본 생활을 위한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돈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는 한국 교회의 정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웃음) (교회의) 대우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여유롭지 않아서 어쩔 때는 외국인 교역자도 알바 해야 되고, 자기 생활비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 알게 되면 별로 안 좋고 자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하던지, 나가서 설교하던지, 아니면 뭐 그냥 실제적인 어떤 알바를 하던지. 이렇게 안하면 안 되는 교역자들 좀 있어요. 특히 신학생. 신학대 다니면서 교회 사역할 때는 거의 다 파트타임이니까 생활비, 학비 이런 것들 만만치 않아요. (중략) 이미 성인이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기도...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신학대 다닐 때는 한 번도 교회 도움 그런 거 없었어요. 저한테 뭐 학비? 장학금? 제가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꺼내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알아서 해야 되니까 뭐 알바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전단지 붙이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실은...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참여자 P)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 조직의 높은 벽을 느끼며 늘 경계와 긴장 속에 있으나, 한국인 사역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장기간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에서 이주민들의 반복되는 이동, 즉 새로운 만남과 떠남 경험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생활과 사역의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또한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본 모습에서 깊은 괴리감과 회의를 경험한다. 게다가 한국 문화와 그 영향권 안에서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감지하고, 혹시 자신이 경험한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면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제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영향을 거의 100%로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문화를,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접했으니까 그냥 제 세계관이 외국 아니라 오직 한국적인 거죠. 제가 한국말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만 보고,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뭐냐 하면 혹시 나는 개척하면 한국 교회처럼 할까봐, 이게 항상 두려워요. 나는 이렇게는 안 하겠다, 해놓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게 두려워요.” (참여자 E)

참여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이기 위해서나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즉 지나친 인사는 진심 없는 과대 행동이며 아부와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인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또한 ‘예의 바른 것’으로 여긴다고 이해한다.

“한국에서 저한테 우리 여기서(한국에서) 오래사신 OO사람들한테도 잘 이런 거(인사)를 못한다는 소릴 들었어요. 여기 오래 살다보면 OO사람도 그렇게 되니까. 사회생활 못 한다, 예의 없다, 그런 것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목사님 대신에 거기 우리 교회 성도가 계셨다,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인사했을까, 안 했을 것 같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빠 보이는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또 복도에 있는데... 내가 인사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좀 사랑 못 받는 그런 쪽으로 좀 (선택했어요)(웃음)” (참여자 T)

다양한 이주민들을 한국 스타일로 묶는 예배의 틀은 자민족중심주의를 보여주는 가장 큰 예라고 한다.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각 나라의 예배가 독특한 민족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상황화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민감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예배 스타일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지금 목회하면서 교역자들, 한국 스텝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 조금 문제 있구요. 사실 문화적으로도 있어요. 사실 OO인은 한국 스타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처럼 해야지.’(하는데) 문화 차이가, 목회 차이가... “한국은 한국 스타일로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왜 OO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요?”(라는데)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참여자 B)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가 자신과 다른 특정 집단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느낌과 편견 그리고 평가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 교회에 나타난 이주민들이 너무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다르게 한

국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이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빨리빨리 변화되길 기대한다.

“못 기다려요. 담배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장로님 중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는데, 그죠? 있어 ~ 한국에서 있지. 그리고 집사님들도... 자기가 생각해 봐. 자기 남편들 생각하면 남편이 교회 다니지 2세대, 3세대, 모태. 모태신앙이지만 담배 피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 전혀 교회도 모르고 윗대 부모님, 아버지가 신앙생활 해 보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서 술(마시는 거 이해 못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담배 피워도 교회 오는 거. 토요일은 모여서 밤새 술 마시지만, 다음날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거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겼죠.” (참여자 S)

참여자들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신학교와 한국 교회에서도 유사하게 경험한다고 언급한다. 대표적인 예로, 일반 사회든, 신학교든, 한국 교회든 대부분의 한국인은 유교적 배경의 예(禮)를 중시하는 것을 강조하며 외국인에게 예(禮)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외국인에 대하여 예(禮)를 갖추지 않는다는 모순점을 지적한다.

“나중에 들어온 부목사는, 사무실에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 외국인(인 저에게) 목사 아니지만, 나 이도 제일 많은 사람인데 대할 때 예의 안 지키는 거. 아~ 이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 90도로 인사하고. 나한테 이렇게 120도(고개를 뒤로 젖히며). 어떤 사람은 90도, 어떤 사람은 120도. 이거 대(大) 무시잖아요? OO에 있으면 나는 그런 친구는 쳐다보지 않을 사람(인데). 존경도 받지 못할 사람, 무식한 사람이 왜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 진짜, 아~ 나중에 아! 그 사람 그런 수준, 그런 가정교육 받았기 때문에 무시하는구나. 개인적인 문제야 (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J)

3. 사역 경험의 긍정적인 면

외국인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긍정적인 면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신앙적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지지를 들었다.

“저 한국 왔을 때도 엄마는 완전 반대했거든요. 다녀와서 뭐 하나 기독교, 신학과 공부는 지금 OO에 와서는 아무 일자리 못 찾는 거죠. 왜냐하면 OO국가니까. 여기는 기독교 인정하지 않고 엄마는 완전 많이 반대했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니가 한국 가면 나는 너 안 본다. 나는 죽어버릴거야. 가지마라.” 나는 엄마 말도 안 들었구요. 지금은 사실 아버지도 가끔씩 교회 가구요. 엄마는 예수님

안 믿지만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참여자 F)

특히 한국 문화와 언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참여자들에 비해 자녀들은 언어와 문화, 지역의 역사 등을 배우고 익히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했다.

“지금 재밌어요. 한국 문화 영향, 임팩트 좀 커요. 아이들이 생각이, 머리 생각이 한국어 그리고 한국 생활 예. 원래 매일 매일 학교 가잖아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그 생각이(배운 것이)... 우리 생활 같이 하면서 “야! 왜 한국 사람이 이 집에 있을까? 하하하! 우리 OO 사람인데. 하하!(이야기해요)” (참여자 I)

이런 가운데 신학과 다양한 학업, 목양에 필요한 준비됨, 독립교회까지 꿈꾸는 자신의 변화, 성장 그리고 도전이 사역의 의미와 기쁨을 준다. 특히 고국교회의 미래가 될 이주민의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장은 더없는 기쁨이 된다.

“제일 기쁨 때는 그 어떤 사람 믿고 진짜 신앙생활 잘 하고 생활 변화해서 그 사람 나와서 간증,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받고 이런, 이런 생활 변화 있었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그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기뻐요. 그 뭐 우리 애기 태어나서 키우는 것 같애. (웃음) 그거 진짜 신학 공부할 때는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변화를 보고 힘이 생겨서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사역 안 했으면 신학 공부 그만뒀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힘들었는데, 사역 쪽에 이런 열매 있는 거 보고 (웃음)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 기쁨...” (참여자 D)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서 사역함으로써 누리는 배움과 도전 또한 풍성한 삶을 준다고 보았다. 한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지지와 위로, 사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또한 사역의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헌금 생활, 체계적인 교회조직과 교회교육,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섬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성도의 높은 소양은 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로 손꼽았다.

“한국 교회 좋은 거 신학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교회 조직적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사회 참여에 대한. 물론 지나치는 것도 있지만 좌파 우파 때문에 교회 내부 갈라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의식 중요해요. 내가 국민으로서, 그 대한민국 한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 투표하는 거. 이거 상황 다르지만, 그 의식 있어요. 미국보다 조금 미성숙하지만, 한국식 민주주의, 민주사회. 조금 개인적인 관련 조금 지나친 거 약점 있지만 그래도 OO보

다 조금 성숙된 그 국민의식 있어요. 사회 참여. 물론 한국 교회 또 그거 또 뭐 그 사회에 대해 별로 관심 없는. 아! 세상 것(하고) 관심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 장로교는 사회책임 있어요.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거. 사회복지, 교회가 만드는 병원, 교회가 만드는 학교, 교회가 만드는 유치원, 여러 가지 그... 복지센터 통하여 사회를 봉사하는 거, (사회에) 영향 주는 거 이거 좋은 점. 이거 커요. 조금 성숙된 교회, 성숙된 교회 사회에 대한 섬기는 것도 조금 넓어요. 그냥 단순 복음 전도 아니고 더 넓게, 그냥 섬김 할 수 있는 거, 그거 좋은 점(이에요).” (참여자 J)

4. 한국 교회의 특징

참여자들은 한국의 유교문화의 배경을 교회 내에서도 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위계(hierarchy)와 질서를 중요시하고, 또 그 속에 직분(職分)과 신분(身分)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직분에 따른 호칭은 서열을 보여주며, 여기에 나이, 직분, 남녀 등을 고려하여 관계하되 조금이라도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면 관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참여자들은 교회조직에서 목회자들 간의 서열과 담임목사 중심의 교회 운영,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갖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을 직접 목도하며 이러한 특징을 지적한다.

“어떤 때는 장로님이 들어오면 한국 목사님은 “오~”하면서 바로 일어나서 쫓아가요. “에! 장로님 오셨어요?” 하고. 정말,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레벨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건 저도 알아요. 이거 한국 스타일인거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생활이죠. 한국에서 생활. 교회에서의 생활이죠... 그런 문화가 처음엔 이상했어요. 너무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물어봐야 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참여자 H)

참여자들이 경험한 또 다른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는 행정조직 문화로, 그들이 경험한 교회 행정은 사무실 출근과 미팅, 서류 업무 등 주로 회사에서 있을 법한 사무실 문화였다. 사역자의 책임과 의무감에 따라 진솔하게 작성해야 하지만 길게는 1년 사역 계획서 작성부터 세부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보고 형식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

“음...(웃음) 뭐 어, 보고서.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은) 모임이 뭐가 있는지, 몇 명 그리고 심방, 예전에 심방은 좀 더 (자세히). 심방을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다 보고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시스템이 몇 번 바꼈어요. 보고서 양식이. 그다음엔 뭐 숫자만 (썼고). OO는 (웃음) (성

도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심방, 계속 같은 사람을, 그것도 매주 해야 되잖아요. 저
도 이거 매주하는 보고는 아닌 거라서. 뭐 한 달씩이라든가, 또 두 달씩, 세 달씩. 하지만 이거 매주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심방, 만약에 심방 안 하면, 뭐 이번 주에 그 친구도 바쁘면 그러면 만약에
심방 'X'(표시)하면, 또 제가 일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하! 그거 너~무 부담 (돼요). 만약
에 저도 O 하면, 이거 제가 거짓말했잖아요. 이거 절대 (안되죠). 그러면 제가 계속, '이거 어떻게 해
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이거는 좀... 하하!" (참여자 I)

참여자들은 교회 행정의 유기체적인 다목적성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보고서가 최종 결정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전달되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고 무작정 기다리는 경험을 통해 원
활하지 못한 소통에서 오는 좌절감을 호소한다.

“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팀 내에서는 굉장히 단합이 되어서 그것을 결
정하고 올라갔는데, 이것이 담임목사님께 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 중간에서 다 커트 당하는 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장로님 선에서 아니면 담당 목사님 선에서 이게 다 잘리는 부
분.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은 들었죠.” (참여자 Q)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가 실적과 형식에 대한 남다른 집착을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이주민 근로자
나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인 수가 들쭉날쭉하
다. 한국 교회가 지속적인 성도 수 증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숫자에 따라 교회 지원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역자들도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투자
한 만큼 성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선교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사역에서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 문화, 사
역 보고서와 숫자. 그것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고. (중략)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보통 예산은, 숫자 계산이 예산이잖아요.
근데 나라마다는 문제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는 쉽게 여기 오면 바로 교
회에 갈 수 있잖아요. 교회에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성도)숫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
는 여기 와서는 그냥 zero(비신자)에서 교회 가는 거는, 교회에 별로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하잖아요. 이거 돈 쓰는 거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는(비신자 전도) 열매 없지. 열매
안보이지. 열매 안 보이는 데는 사람이 봉사, 이런 거 안 하고 싶죠. 근데 이쪽은(사람이 쉽게 들어
와요. 많아요. 왜냐하면 본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지역만 바꾸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몰
라요. 예수님 뭘지 몰라. 그냥 가는 거지. 신앙이 안 좋죠. 그래서 상황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종교가 뭔지, 종교가 몇 %인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믿어도 돌아가서는 길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자기가 지금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왔다 갔다 상관없잖아요. 그냥 교회 교환만 하잖아요. 학생 교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조금 슬프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한국 교회의 연중 절기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통해 흥미 중심으로 과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에 편승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주민 사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프로그램에도 동시에 참여해야 하므로 이중적인 사역으로 인해 혼선이 동반되고 사역에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게 프로그램을 따라야 해요. 프로그램 중심이죠. 프로그램 따라가려고 하면 제 리더가 너 뭐하냐고 그러죠. 왜냐하면 국제부 사역에 프로그램도 있고, OO교회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때때로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국제부 사역도 해야 되지만, OO교회 프로그램 따라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왜 국제부 사역 안 따르냐고 그러고 (웃음) 그게 좀 복잡했고, 혼란스럽게 했고, 스트레스 받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스트레스 받게 했는데, 편안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역이 마치 공장 같았거든요. 정말 공장 같아요. 어떻게 할까, 노동자가 일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저의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여긴 저는 사역을 하지만, 사역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같아요. 네.” (참여자 H)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성 중심의 리더십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남성과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과 똑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성별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나뉘고(신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교회 사역의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나 남성 사역자가 여성 사역자보다 우선적이라는 점은 당연시되거나 자연스럽다고 한다.

“한국에서 여자 전도사님, 설교 안 하는 게 (여성)전도사님이라면, 이 정도면... 다~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어야, 그거 전도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회만, 목회도 심방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만 하는 거면 굳이 신학교 다닐 필요가 있는지... 네,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전도사도 그... 좀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A)

5.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남들이 하는 것은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균점·평등(均霽·平等: Equilibrium)사상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라면 당연히 적어도 몇몇 나라의 이주민 사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형교회가 하면 우리도 이주민 사역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작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그 OO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도 저는 들었던 생각이 외국인 사역 있잖아요. 큰 교회한테, 대형교회한테는 특히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장식품’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 머리 묶을 때는 이거 뭐지 이거... 고무줄 하나면 있으면 되지만 우리 더 예쁘게 보이려면 핀도 하나 꽂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도.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더... 고무줄 보다 더 비싸게 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때는 신기해서... 그래도 그분들 사역자들한테 뭐 사역비도 주고, 뭐 학비도 주고... 그렇지만 저는 늘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대형교회라면 외국인 사역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고거는 진짜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 가지를 딱 부딪쳐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장식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있어요.” (참여자 T)

특히 이주민 사역에 외국인 사역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인 사역자들이 리더십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적으로 한국 교회는 각국의 외국인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이주민 사역의 리더십을 100% 이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이주민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의 주역으로서도 한국인 목회자 못지않은 인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외국인들도 실력 있는 사람은 세우면 되고. 그리고 더 공감하고, 자기 외국인 입장 아니까 외국인 무슨 필요든지, 외국인 사역자 무슨 환경 어떻게 할지, 더 공감하고 네.. 자기가 인격적으로도. 또 여기(한국 교회) 와서는 너무 나쁜 말하면, 근로자야. 사역자 아니고 근로자야. 그래도 뭐, 일단 그 뭐지? 사역 마찬가지. 힘드는 거 뭐 물건 옮기든지 다 외국인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선교하고 뭘 리더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공평하지 않다고(생각하고), 서로가 (잘 세우면)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을 외국인 사역에서, 국제 사역에서 그들을(외국인을 리더로) 세우면 좋겠다(생각해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이주민 사역자라면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 맞추어 사역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사역자는 외국인 사역자이며, 그들은 한국시스템이

아닌 이주민의 삶의 방식으로 사역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 또한 자민족중심주의나 교회주의를 벗어나 이주민의 문화와 그들과 함께 가족 구성원이 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화적 요소의 총합을 감안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 문화의 전통적인 교회주의에 빠진 운영방식으로는 다양한 나라 출신인 이주민들을 담을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고쳐야할게, 외국인 사역하면, 진짜 외국인이 책임 갖고, 그냥 좀 알아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필요하면, (다른 한국 리더에게) 부탁하여 세워놓고, 조금, 좀 잘 외국인 문화를 잘 이해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구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전통이나, 문화나, 언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조건 이렇게 시스템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외국인을 한국 시스템을 적용하면, 한국 시스템이 좋지만 근데 다, 다는 안 맞잖아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참여자 G)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의 해외 단기선교가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한 번의 쇼(show)로 끝나는 일방통행 및 고비용을 요구하는 한계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 선교사들의 부족한 상황화와 팀워크의 부재를 선교의 부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매년 교회에서 OO 단기선교도 가고, 저는 가서 또 OO어 가르치고 그러면서 저도 부탁한 거예요. OO에 간 얘기 좀 우리한테는 들려주면 어떡냐. 일단 아직 온 팀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서 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가나)... 근데 그분들은 여행 목적으로, 저한테 어디 어디 가면 좋냐.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잘 알죠. OO에서도 교회에서 팀이 오면 받아주고, 통역하고 하는데, 아, 여행 목적으로 대부분 가니까 약간 쇼(show)하고, 여행 목적으로 가는 거.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참여자 R)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의 선교사역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와 유사한 붕어빵을 만드는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한다. 현지인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비판적 상황화 없이 한국 교회의 원칙과 기준에 맞춘 선교를 진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교회는 일단. 물론 교회는 담임목사님 따라서 그 교회 큰 그림이 있지만 외국인 사역은 덜 간섭하고, 더 많이 도와주고. 우리끼리 우리(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거, 현장감 없는, 다문화, 아... 이국의 사람, 타문화에 대한 이해 없는 열심은 줄이고. 이해하시죠? 너무 우리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이거(목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문화권 넘어가지 못한 사람 이거(타문화 사역) 너무 하기 힘들

잡아요? 어... 내가 열심히, 내 생각으로 그 들어 온 외국인 학생, OO 학생뿐만 아니라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만들고, 우리 붕어빵으로 만드는 거 그거 선교적인 전략 아니잖아요. 그 지금 선교학 이미 오래된 이론 하지만 실천적으로 아직 그런 많아요, 실수들이.” (참여자 J)

또한 한국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적 영향권을 확장, 강화시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한국 교회의 선교를 언급한다. 선교사가 떠난 뒤에도 현지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럴 때 현지를 잘 아는 현지 지도자들이 깊고 넓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보다는 현지인이 영향 커야지,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떠나면 이 사람(현지인)이 선교사님 안 찾고 현지 사역자를 찾지요. 현지인이 선교사님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이 현지 사역자 안 키우고 그냥 이용만 하고, 그 나중에 떠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런 효과 없는 거예요. 네. 그거하면 선교를 또 다시 해야 돼요. 선교의 목적은 현지에서 (현지인들) 키우고, 현지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자기가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떠나고. 떠나고, 네. 그렇게 해야지...(중략) 그래서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사역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주민이 속한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 즉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대응적 사역을 실행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춤했던 시간이 있었으나, 한국 교회는 사역적 방법을 조정하거나 행사 취소 등의 대응보다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빠른 기간 안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전체 교육자 때도 같이 나눴던 애긴데요. 음..,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목회를 했지만, 올해나 앞으로는 온라인 목회, 그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쩌면 상황이 이게 탁탁 치니까 그것을 어... 대응하기 위해 사역을 했었다면. 사역을 다 조정을 하고 행사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거기에 맞게 사역을 진행을 하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다, 라는 게... 더 이상 핑계가 안 되고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을 갖추어 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목회, 온라인 사역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장점은 또 있더라구요. 그중에 잘은 안 되지만 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OO에 있는 친구들도 가끔씩은 예배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구요.” (참여자 Q)

참여자들은 현지 성도들은 인적교류와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위기 대처와 도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동안 이루어졌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을 반성하며, 사역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요청된다고 보았다.

“내 자신도, 교회도, 성도도, 뭐 다른데 신경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적으로. 처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생각은, ‘아, 이거 진짜 교회다.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다른데 신경 쓰고, 이제 드디어 조용해라, 조용해라(웃으며). 가만히 있어라’ 본질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큰 행사 그거 못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진짜 예배 갈망한 사람 예배드리고 등등등등. 목회자도 활동이 축소되고, 책도 많이 읽고, 배우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기독교 강요, 강해 설교, 먼저 스스로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 주석, 성경 프로그램으로 자기도 배우고, 소화하고 설교하잖아요. 스스로 공부도 하고. 네... 좋은 기회예요.” (참여자 J)

6. 삶을 회고하며

외국인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자 한다. 그리고 배움과 성장 그리고 성숙되어가는 자기 삶에 대해 강한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자신의 전체 삶을 회고하며 그 가치에 대해 언급한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물론 이 과정 속에 공부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섬기는 거, 한국 성도들, 교수들, 사람들 그냥 만나는 거. 지적인 면에서. (중략) 한국에 유학 와서, 큰 스승님들 밑에 배우고 얻고, 돌아가서 가르치는 거 그 분명히 격차 있잖아요. 인식적인, 지적인 성장, 그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 보는, 판단하는, 생각하는 그 성숙.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 그 부딪히는 거. 그 심지어 다른 사람(과 관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고, 그냥 우리 조금 어... 사람됨. 사람을 사람됨으로 그냥 다듬는 과정. 그 인지하고도 실패도 했었어요. (실패)해 본적인 있고, 그냥 계속 지금 조금 성숙했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지식적으로, 인품이 조금 성숙... 그 업데이트, 그거 저에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참여자 J)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역 초기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원망과 분노 그리고 교만함 등의 감정에 휩싸였던 감정을 나누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이 자신을 위축되게 했고, 이로 인해 이주민 성도들 또한 한국 교회와 충분한 교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해 이주민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국한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후회했다.

“조금 더 한국 교회 그 환경을 보여줬더라면. 좋은 면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위축되니까 사람들도 위축되게 하고, 다른데 못 들어가게 하고. 음. 그것도 많이 후회하고. 음... 나도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도 교인들하고 교제하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 만약에 청년부면 청년부,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거나 이런 것도 내가 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후회해. 왜냐하면 나도 그... 한국 교회 좋은 점과... 그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그 여러 명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배가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나도 보지 못했고, 저도 교인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 후회하고. 많아요.” (참여자 R)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했다. 우선적으로 소명, 즉 부르심이다. 부르심만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낳을 수 있으며, 사역의 굵이 굵이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역을 준비하는 제2, 제3의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한다.

“사역하니까 부르심... 항상 중요해요. 부르심 없으면 이 길을 가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가니까 때론 갈 수 있고, 때론 포기해요. 근데 만약에 부르심 있으면 가죠. 끝까지 가죠... (중략) 부르심 있으면 사역할 때,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람 많이 보내주고, 열매도 많이 얻고. 근데 때론 힘들고 옆에 사역하는 동안에 한 명도 안 믿고. 어... 그 경험을 어떻게든 부르심의 지하고 가죠. 부르심 없으면 이 길을 못 가겠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L)

둘째, 코람데오(Coram Deo)의 성숙한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자신이 사역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단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되,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로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성숙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사역자의 삶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성숙한 삶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우리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마음 변함없이, wholly(온전히) 집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밖에서도 (웃으며) 문 나갈 때 이거 같은 사람. 네. 그런 거는 도전이에요. 네. 말씀만 잘하는 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잘해야 돼요. 하지만 같은 사람으로. 예, 저도 요즘은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목사 호칭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뭐 그 존중과 존경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요... 이 명찰 때문에 (웃음) 그 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평신도,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처럼 서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 안 해도. 사실은 평신도도 거룩한 사람으로 같이 나가야 되죠.” (참여자 I)

셋째, 한국 교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신학교 시절부터 한국인과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교제와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므로 한국 사역자들의 생각이나 행동, 생활 등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에 한국에 와서 산다면 한국말을 배우고, 그 사람의 뭐랄까 심정이나 문화나 같은 거... 그냥 여행자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 년 있든 몇 년 있든 나는 정말 여행자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과 문화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배움이거든요. 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행자로... 그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년, 몇 년 살아도 그냥 여행자로 생활하거든요. 와서 그냥 지내다가 가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 또는 뭐 그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참여자 E)

넷째,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사역자에게 이주민 사역만이 사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이주민 사역에 사역을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 교회의 전 영역으로 사역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 즉 사역자의 역량의 확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먼저 한국어 배워야 한다고 그거 말하고 싶어요. 또 무조건 한국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가면 진짜 음 손실이에요. 만약에 OO어 예배부만 사역하면, 그거 만약에 이 보람이 100%라면 OO어 예배부에서 사역하는 보람이 한 30%, 40% 되고. 아마 어떨 때는 한 10%, 20%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진짜 배울 게 많아요. 그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냥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알아야 나중에 자기가 목회할 때 그런 실수 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어 배워야 하고. 한국인 교제 그 모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참여자 A)

7. 수신: 한국 교회에게

참여자들은 한국 성도들이 치열한 생활 속에서도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러한 섬김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일해 온 교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

도로 교회의 지원과 지지가 지금까지의 한국 생활과 사역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한국 교회와 사역하는 게 좀 고맙습니다. 영향이 많이… 엄청 크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부르심도 받고 같이 일 허락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대상으로는 저하고 한국 교회 같이 일 하니까 그 영향은 엄청 커요. 아! 예를 들면 지금하고 시작했을 때부터 비교하면 성장도 되기도 하고. 배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물론 그… 경험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제가 그 믿음 안에 성장되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확신하게 그리고 경험하게 됐어요. 만약에 오늘 OO에 돌아가면, 언제든 그날은(고국으로 돌아가는 날)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첫 번째는 OO 나라 위해서,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 희생, 사랑, 또 물질까지 주는 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그동안에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또 물론 사람이 사역하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로 그 오해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죄송도 하고… 어, 감사합니다.” (참여자 L)

또한 한국 교회라는 낯선 환경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잘 정착하고, 사역자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기를 부탁한다. 한국인의 조바심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인처럼 사역하기를 요구하거나 사역의 결과만을 기대하기보다 이주민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은 진정한 도움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외국 사역자를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또 현지(외국인)사역자가 한국 교회를, 문화를 또 이해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무조건 출발할 때는 다 마음에 하고 싶어요. 섬김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또 위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누르는)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존중하고 겸손하며, 같이 사역하면 열매 나오는 거죠.” (참여자 C)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주민 입국이 한국 교회에 주는 이주민 선교의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보았다. 외국인 입국과 거주가 현저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교회가 사역적 기회로 삼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이웃으로 다가온 이주민들을 여전히 멀리 있는 선교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한국 교회 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다국적 민족의 이동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뭐 선교적으로 봤을 때 어, 한국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어요, 선교적으

로. 제가 OO선교에 대한 뭐 이렇게 강의나 또 그걸 할 때면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역대 이래로 보면, OO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배워가고 했던 경우는 없어요. 그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쪽 보면.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많은 OO인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배워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에게 준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것은 저는 그냥 단지 한국의 문화만을 이렇게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주라, 라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선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OO인. 사실 OO뿐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문 앞 선교, 내 집 앞 선교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선교하도록 그들을 우리 집, 문 앞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정말 소홀히 생각할 수 없죠. 교회가 특히, 또 성도들이라면 그것을 소홀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임은 또한 한국 교회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사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수용적이기 보다는 배타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참여자 Q)

끝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은 교회가 성도를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한국 교회의 교회주의에 그늘진 모습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외국인 사역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가 아닌 더 넓은 관점에서 지원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한 교회의 사역이 끝나면 그곳에서 멈춰버리는 사역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다문화 국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마음이 외국인들 위한... 너무 사랑해 주고... 하지만 이것도 그... 좀 더 개발할 수 있게 이거 투자 필요해요.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 뭐 돈보다 이거 진짜 마음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쉽지 않아요. (웃음) 쉽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열린. 그러니까 더 개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키워주고. 한국은 점점 다문화 나라 될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만 아니고 또 계속. 또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교회 시스템만 말고, 나라... 그... 다문화 나라로서, 다문화 교회로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족이라던가, 다문화 이웃.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라는 게 뭔지. 예. (중략) Difference yet one unity. 이거 쉽지 않아요.” (참여자 I)

V. 한국 교회를 향한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함의

1.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보여준 것으로, 그들의 삶과 사역에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히버트(Hiebert, 1995)의 비판적 상황화에 따라 한국 교회가 외국인 사역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비판적 상황화에 따른 신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은 기독교인의 신념과 실천에 대한 최종적이고 한정적 권위로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하여야만 한다. 둘째, 믿는 자의 제사직은 모든 신앙이 있는 자가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함을 가정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교회의 계속적인 검토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외국인 사역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동일한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두가 전체로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Hiebert, 1995: 242). 따라서 히버트(1995)의 비판적 상황화에 근거하되 외국인 사역자들이 요청했던 의미 있는 진술을 따라 <Table 3>과 같이 교단 차원의 정책과 교회 차원의 정책, 그리고 외국인 사역자 개인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Table 3. Policy proposals for Korean Churches

division	detailed classification	contents
denomination level policy	1. 멤버케어(Member Care) 팀 구축	교단 별 교회 사역, 단체 사역에 동원된 외국인 사역자들의 토털케어 관리 체계가 필요
	2. 외국인 사역자 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바른 처우 시행	사역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임용 규정(학업, 거주, 사례)에 대한 구체적 명시, 기초생활 소득 보장이 필요
	3. 한국 교회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한국, 한국인, 한국 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문화 충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각 나라별 번역본 마련과 교육이 필요
	4. 외국인 사역자를 위한 전문 상담기 관 운영	타문화권 사역자인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 필요함, 각 나라 언어에 특화된 상담사 연결이 필요
	5.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대비한 다문화 기독교교육과정 개발	단일민족을 대상으로 했던 교회의 교육과정이 다문화 신앙 공동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문화기독교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6.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감수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주민과 함께하는 신앙공동체의 체질적 개선을 위한 문화적 역량,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7. 교단 신학교 내 다문화 역량 개선을 위한 수업 개설	다문화 사회를 직면한 교회 사역자의 필요와 양성을 위해 신학교 내 다문화 역량 관련 수업 개설이 필요
	8. 외국인 유학생과 사역자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	후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역자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
	9. 외국인 사역자 중심 자문단 설치	외국인 인재육성, 관리, 정보 공유 등 한국 교회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관점 제공이 필요함, 교회 사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필요
	10. 이주민 사역과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연구 활동과 실행	이주민 사역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관심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현황 조사 구축과 사역자에 대한 연구 활동이 필요

church level policy	1.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위한 교회 차원의 체질 개선과 선교사역의 방향 설정	이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 신앙공동체로의 체질 변화, 방향 설정 필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
	2. 외국인 사역자의 동등한 파트너십 요청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동등한 파트너십이 필요
	3. 교회 사역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인턴십 운영	외국인 사역자들의 원활한 사역의 시행을 위해 교회행정 조직과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담당 목회자의 책임 하에 멤버케어 측면에서 인턴십 운영이 필요
	4. 한국 목회자들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민감성 훈련	이주민과 외국인 사역자들과의 문화적 충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 목회자의 문화적 역량과 민감성 교육이 필요
	5. 다문화 신앙공동체에 맞는 주일학교 교육과정 적용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 이주민 예배부와 협업을 통한 교제, 참여, 확대 교육이 필요
	6. 교회 내 민족들에 대한 상호 교차 문화이해교육	교회의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이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차 문화이해교육 실시
	7. 이주민 사역을 지역사회로 확장	이주민 사역을 교회 내 사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공공단체와 연계성을 가진 이주민 선교사역으로의 확장이 필요
	8. 한국인 이주민 사역자와 외국인 사역자 양성	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대한 전략적인 사역으로써 이주민 사역자와 외국인 사역자의 양성이 지속되어야 함
	9. 여성 사역자의 리더십 활성화 방안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은 외국인 여성 사역자에게 사역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등한 사역적 기회 제공이 필요
	10. 한국 교회의 문화적 인식의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개선	부정적인 한국 문화가 교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말씀에 따른 바른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논의와 개선이 필요함
individual level policy	1. 사역자로 부르심에 대한 내적, 외적 확신	다양한 외부 환경의 문제가 거듭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에 대한 내적, 외적 확신이 필요
	2.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	이주민 사역에만 함몰되지 않으며, 전체 한국 교회 사역 속에서 교회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교회 사역 참여 및 사역적 역량 강화가 필요
	3. 한국 문화와 한국어 습득	문화충격을 최소화, 적극적인 한국 교회를 이해, 문화적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어 역량 강화가 필요
	4. 이중문화의 가교 역할 강화	이주민과 한국인의 문화적 간격을 좁히고 이해와 화합에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5. 기독교교육의 측면에서 이주민 2세대의 다중정체성 교육과 부모교육 개발	이주민 부모와 함께 이주한 이주민 2세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체성 교육 개발과 실행, 그리고 부모교육이 필요함
	6. 민족 공동체를 넘어 선교동원 및 선교교육을 위한 역량개발	사역자의 원문화와 이중문화를 호환시킴으로써 현지 선교와 이주민 선교를 위한 동원 및 선교교육을 위한 역량개발이 필요
	7. 사회적 지지그룹 개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을 오픈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 즉 사회적 지지그룹 개발이 필요
	8. 장기적인 사역을 위한 연장교육 필요	현재 사역과 장기적인 사역 계획에 맞는 역량 개발을 위한 연장교육이 필요
	9. 이주민 목회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독립교회 개척에 대한 역량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의 자립성을 키우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리더십 발휘를 위한 역량 개발이 필요
	10. 한국 교회와 지속적인 선교사 사역의 협력 관계 유지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준비되고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고국(현지) 사역에서도 한국 교회와의 소통, 연합을 통해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필요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로 첫째, 한국 교회와 이주민 사역 공동체라는 이중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의 의미와 그 적응 과정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사역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한국 교회가 잇기 쉬운 사역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중의 하나로 여기는 모든 신앙인의 책무”이다(김도일, 2020: 55).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이중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외국인 사역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사역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순홍(2009)은 한국 교회가 말하는 이주민 선교의 장애 요인으로 첫째, 선교전략의 부재, 즉 사역 방법을 모른다는 것과 일꾼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순홍, 2009: 157). 반면 외국인 사역자들이 지적하는 이주민 선교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첫째,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균점사상(均霑思想)으로 이주민 사역이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한다”는 일종의 과시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이주민 사역의 주체가 여전히 한국인 사역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언어와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거리는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주민의 문화적 공복감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며(임희모, 2015: 275),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이주민의 삶을 총체적 실존 전체로 이해하고 다양성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주민을 주체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 교회는 ‘우리 것이 최고’라는 자부심에 깊이 뿌리 내린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이주민 사역과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투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버트는 우리는 우리 자녀와 새로운 회심자에게 기독교 의식이 지닌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어 그 의식들이 빈껍데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Hiebert, 2018: 262).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전통과 신념 그리고 관습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단면을 분석, 점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회 교육은 교회가 있는 곳에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며, 교회가 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강용원, 2003: 7-8).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존재는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괄목할 만한 열매를 맺었으며, 외국인 사역자들 또한 사역자로서 신학교육을 통해 교회 교육의 큰 제도 안에서 탄탄한 기반을 이루었다. 반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장 제일주의, 성과주의에 중점을 두면서, 규모가 큰 교회,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를 성공한 교회로 보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중 절기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프로그램 중심 목회를

지속해 왔다(강용원, 2003: 16-17).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서열 문화는 신앙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일상의 삶 자체이자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정원범(2008)은 교회 직분이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정신에서가 아닌 힘의 서열로 계급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원범, 2008: 93-94). 한국 교회에서 나이에 따른 서열과 직분은 권력으로 작용하여 더 강한 계급적인 의미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통해 진정성 있는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찾는 데 기여하고 있다. 레티러셀(Letty Russell, 1952)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는 것을 기독교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한다(Ruessell, 1952: 9).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교육은 사람들이 양육되는 방법이었고, 항상 교회의 관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의 초대로, 변화하는 21세기,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한국인과 전혀 다른 나라와 민족 출신의 사역자들이 삶을 형성하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비기독교인인 이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이주민 공동체를 성장시켰고, 그 속에서 그들 스스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주민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을 형성하시고, 또 사람들을 참된 성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다(Ruessell, 1952: 18).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하나님의 선물인 기독교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 속에 펼쳐진 정체성과 신앙 형성,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지를 통해 기독교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과 선교학의 간학문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조성국은 카이퍼(Kuyper)나 바빙크(Bavinck) 모두 선교사역에서 교육의 의의를 복음 선포와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근대에 사회와 학문이 세속화 되면서 과도한 분화와 분리가 심화되었던 점을 반성하고, 신학의 분과들이 유기체적이라는 맥락에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가 방향의 관점이라면 기독교교육학은 방법과 기능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Ruessell, 1952: 18). 그러므로 선교와 기독교교육은 서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독교교육은 선교교육이며, 기독교교육에 참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교와 기독교교육의 간학문적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3. 연구의 제한점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는 한국 교회의 시스템과 제도적인 관습 속에서 자신의 문화가 어떻게 충돌하며, 이중문화적인 존재가 경험하는 총체적인 삶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특성상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범위의 한계점이 있다. 외국인 리더십의 관점에 집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교회 내 이주민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 이주민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었다. 즉, 외국인 사역자에 편향되어 있는 연구의 특성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 이외에 다양한 이주민 사역자의 관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용원 (2003). **21세기 한국교회의 “교육목회”적 대응**. 부산: 고신대학교 부설 기독교교육 연구소.
- [Kang, Y. W. (2003). *21st Century Korean Church's "Educational Pastoral" Response*. Busan: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Kosin University.]
- 계선자·이연숙·차성란·장명선·이명호·강기정·김연화·강복정·김향은 (2012).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신정.
- [Gye, S. J., Gye, Lee, Y. S., Cha, S. R., Jang, M. S., Lee, M. H., Kang, K. J., Kim, Y. H., Kang, B. J. & Kim, H. E. (2012).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Seoul: Shin Jeong Publishing.]
- 구성모 (2015).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 실태와 미래 방향. 구성모 외 공저. **다문화 선교**(pp. 305-337).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u, S. M. (2015). Immigrant missionary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church. In Gu, S. M. (Eds.). *Multicultural Mission* (pp. 305-337). Seoul: Christian Literature Center.]
- 김도일 (2020).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4, 51-79.
- [Kim, D. Y. (2020).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51-79.]
- 김동화·이종도·이현모·정흥호 역 (2018). **선교와 문화 인류학**. Hiebert, P. G. (1986).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 [Kim, D. H., Lee, J. D., Lee, H. M. & Jung, H. H. (2018).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Seoul: Joy Mission Publishing. Trans. Hiebert, P. G. (1986).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Michigan Baker Academic.]
- 김영동 (2000).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서울: 한들출판사.
- [Kim, Y. D. (2000). *Mission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Migrant Workers*. Seoul: Handeul Publishing House.]
- 김향은 (2009). 결혼이민자 가정의 상호통합과 교회수용. 박찬식, 정노화(편). **다문화사회와 이주자 선교** (pp.48-78).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 [Kim, H. E. (2009). Mutual Integration of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Church Acceptance. In Park, C. S., Jeong, N. H. (Eds.). *Multi-cultural society & migrant mission*(pp. 48-78). Seoul: Christianity Industrial Society Research Institute.]
- 문창선 (2016).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7, 51-74.
- [Moon, C. S. (2016). The flow and progress of missionary work for immigrants in Korea. *Mission Insight*, 7, 51-74.]

- 석창원 (2016). 교회(목회)로서의 이주민 사역. **한국선교 KMQ, 통권 60호**, 16(2), 29-41.
- [Seok, C. W. (2016). Migrant ministry as a church (ministerial). *KWMA KMQ*, No. 60, 16(2), 29-41.]
- 안혜준 역 (2017). **질적 연구자 되기**, Glesne, C. (2014).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Ahn, H. J. (2017).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Seoul: Academy Press. Trans. Glesne, C. (2014).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Boston: Pearson Education.]
- 윤대진 (2016). 이주민 선교를 위한 현지인 지도자 양성방안. **한국선교 KMQ, 통권 60호**, 16(2), 63-73.
- [Yoon, D. J. (2016). Measures to train local leaders for migrant missionary work. *KWMA KMQ*, No. 60, 16(2), 63-73.]
- 이명선·김증임·이윤선 역 (2010). **문화기술적 연구를 위한 정보 제공자 선택**. Jeffrey, C. J. (1990). *Selecting Ethnographic Informants*. 서울: 군자출판사.
- [Lee, M. S., Kim, J. I. & Lee, Y. S. (2010). *Selecting Ethnographic Informants*. Seoul: Koonja Publishing. Trans. Jeffrey, C. J. (1990). *Selecting ethnographic informants*. Newbury Park, Calif: SAGE.]
- 이순홍 (2009). **지교회의 자국 내 외국인 선교전략**. 파주: 한국학술정보
- [Lee, S. H. (2009). *The local church's missionary strategy for foreigners in their home country*. Paju: KSI.]
- 이현철 (2015).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 **성경과 신학**, 75, 349-377.
- [Lee, H. C. (2015). Ethnography on Life and Culture of Assistant Pastor in Korean Church. *Bible and Thology*, 75, 349-377.]
- 이효숙 역 (2005).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Attali, J. (2005). (L') *homme nomade*.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Lee, H. S. (2005). (L') *homme nomade*. Seoul: Woongjinjisighouse. Trans. Attali, J. (2005). (L') *homme nomade*. Paris: Fayard.]
- 임희모 (2015).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다중다문화선교 리더십. **신학논단**, 18, 267-299.
- [Lim, H. M. (2015). Multi-multicultural Mission Leadership in the Korean Multicultural Context. *Theological forum*, 18, 267-299.]
- 전윤조 (2021). 한국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앙과 학문**, 26(4), 279-308.

-
- [Jeon, Y. J.(20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Faith & Scholarship*, 26(4), 279-308.]
- 정노화 (2009).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선교. 박찬식, 정노화 (편저). **다문화사회와 이주자 선교**(pp. 113-147).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 [Jeong, N. H. (2009). Multiculturalism and Achievement in Korea. In Park, C. S., Jeong, N. H. (Eds.). *Multi-cultural society & migrant mission*(pp. 279-308). Seoul: Christianity Industrial Society Research Institute.]
- 정원범 (2008). 한국문화와 한국교회의 관계유형의 변천사. 임성빈 (편저).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63-97.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Jeong, W. B. (2008). History of Changes in Relationship Types between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Church. In Im, S. B. (Eds.). *Christian culture and Korean culture* (pp. 63-97). Seoul: Jeyoung Communications.]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18).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 [Cho, H. S., Jeong, S. W., Kim, J. S. & Kwon, J. S. (201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GMS 다민족사역연합체 (2020). **국내이주민사역현황**. 인천: GMS 다민족사역연합체.
- [GMS Multi-ethnic ministry association (2020). *Status of domestic migrant ministry*. Incheon: GMS Multi-ethnic ministry association.]
- Ruessell, L. M. (1952).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Spradley, J. P. (1979).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Stewart, A. (1998). *The Ethnographer's Metho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3.23). “2022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1NTc1NDQlMkZhcjRjbFZpZXcuZG8lM0Y%3D> (검색일 2022.3.29.)
- [“February 2022 Immigration Policy Monthly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1NTc1NDQlMkZhcjRjbFZpZXcuZG8lM0Y%3D>

24lMkYyMjclMkY1NTc1NDQlMkZhcRjbFZpZXcuZG8lM0Y%3D(2022.3.29.)]

크리스천투데이 2018.9.26.일자. “회심→제자양육→리더십 이양까지 생각하는 이주민 선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6390> (검색일 2022.3.3.)

[“Immigrant missionary thinking from conversion → disciple raising → leadership transfer”
Retrieved from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 (2022.3.3.)]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Life and Ministry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전윤조 (HOPE선교회)

논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타문화권 선교인 이주민 선교 사역의 전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관한 것이다. 이주민 5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외국인 리더십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훈련에 대한 관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주민 사역의 전략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현재 이주민 선교사역의 실질적인 사역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관심이 재조명 되어야 함을 자각하고, 질적연구를 사용하여 그들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사역은 무엇인가?”이다.

연구자는 외국인 사역자의 삶에 대하여 조망하기 위해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특히 한국 교회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삶과 사역을 경험한 외국인 사역자 2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주요한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현장 자료 수집,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총 3회로 1회당 약 90분에서 120분간 진행되었다. 전체 전사 자료는 총 1,064장이며, 질적 자료 분석 과정은 Nvivo 12를 활용하여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118개의 코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3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7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7개의 구성요소는 ‘한국, 새로운 시작’, ‘한국 교회 내 사역 경험’, ‘사역 경험의 긍정적인 면’, ‘한국 교회의 특성’,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에 대하여’, ‘삶을 회고하며’, ‘수신: 한국 교회에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보여준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사회, 한국 교회, 이주민 선교, 외국인 사역자, 기독교교육, 다문화 신앙공동체